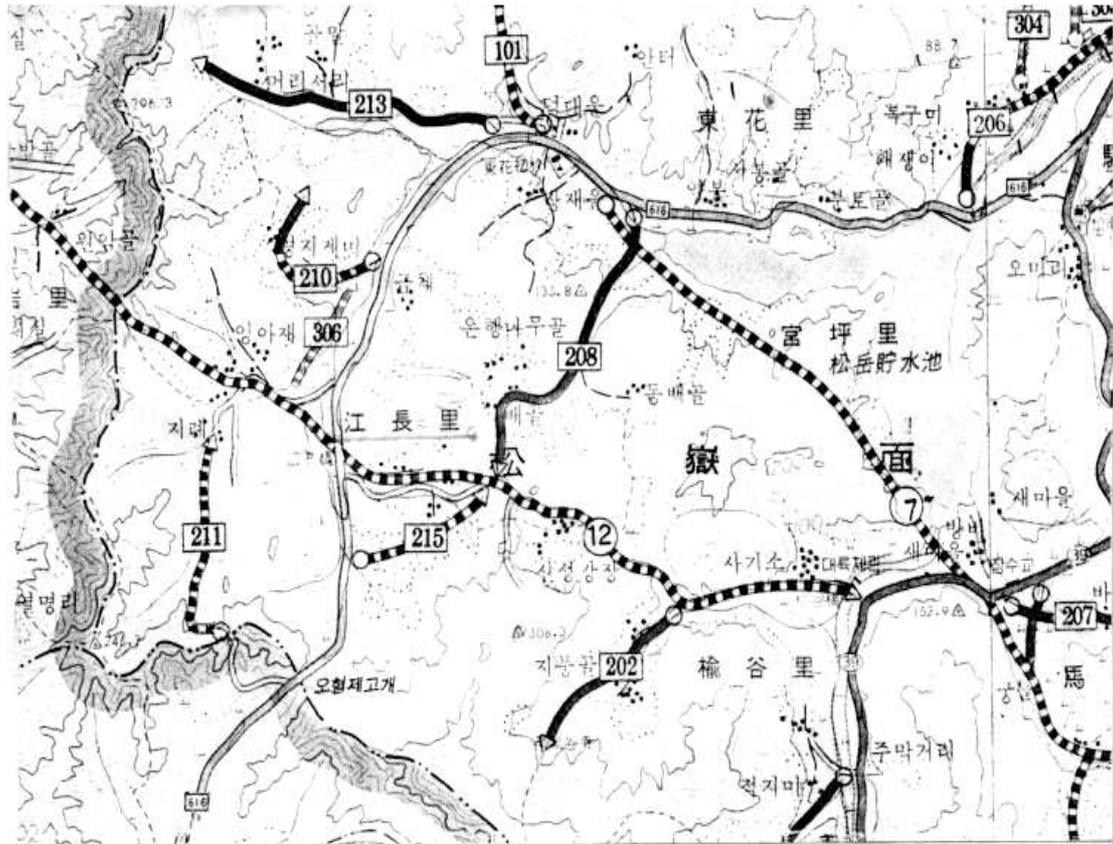


강장리·江長里

강장리·江長里

강장리는 송악면의 한 마을로 행정상 강쟁이 마을과 지레 마을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총 인구는 284명이며, 가구수로는 78세대이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강장리는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강씨와 장씨가 많이 살았으므로 강장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아리, 지라리를 병합하여 강장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 강장리 위치도 >



☒ 강쟁이마을, 지레마을 (강장리)

강장1리는 강쟁이 마을이라 부르며, 마을 입구에는 돌장승이 두 개가 서 있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강쟁이 마을이라 칭하게 된 유래는 이 마을에 강씨와 장씨가 많이 살았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강장 2리는 지레, 잉아재 마을로 구분되며, 지레라는 지명은 이 마을에 소지레 만한 금덩이가 어딘가에 있다하여 불리워지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마을의 생김새가 마치 소의 지레(지라)처럼 생겼다 하여 불리워졌다는 설도 있으며 이곳에 옥녀직금형의 명당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잉아재 마을은 강장 서쪽 산속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벼들에 잉아를 건 것과 같이 되었다 하여 유래 되었다.

< 조사당시 강장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강쟁이 마을은 위도 36-42-20, 경도 126-57-4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송악을 지나 예산 가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송악면의 끝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도로의 왼쪽 산기슭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마을 앞으로 유곡리쪽에서 예산방면으로 통하는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레마을은 위도 36-42-40, 경도 126-57-20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예산 가는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강장1리 못미처 우측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150m 들어가면 산속으로 가구들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다.

2) 현황

강쟁이 마을의 인구는 남자 72명, 여자 58명으로 총 130명이 살고 있으며, 총 41세대로 이중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레마을의 총 인구는 154명이며, 남자 72명, 여자 82명으로 여자가 많다. 가구수는 총 37가구가 살고 있는데 9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강쟁이마을	130명	72명	58명
지레마을	154명	72명	82명

- 생업

구분	계	농업	기타
----	---	----	----

마을명			
강쟁이마을	100%	90%	10%
지레마을	100%	95%	5%

강쟁이 마을의 농경지 면적은 논 21.5ha, 밭 19.4ha로 논이 밭보다는 약간 많은 편이지만, 산골이기 때문에 밭농사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농기계는 경운기, 예취기 등 다양한 종류의 농기계들도 약간씩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의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 1개소 밖에 없다.

지레마을의 농경지는 논 26.3ha, 밭 16.4ha로 강쟁이 마을의 논면적보다 넓은 편이며,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예취기 등 강쟁이 마을보다 가구수는 적지만 농기계 보유현황은 양호하다. 마을의 문화 시설은 다른 마을과 동일하게 마을회관 1개소만이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강쟁이마을	40.9ha	21.5ha	19.4ha
지레마을	42.7ha	26.3ha	16.4ha

- 문화 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시설
강쟁이마을	1개소	1개소	-
지레마을	1개소	1개소	

강쟁이 마을의 주된 성씨는 서씨로 41%인 17호가 있고, 김씨, 최씨가 살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성씨들이 있다. 그리고 연령층은 다른 농촌마을과 비슷하게 60대가 가장 많았다.

지레마을은 이씨가 가장 많고 그밖에 다양한 성씨들이 살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로는 고르게 분포하지만, 이 마을 역시 50대와 60대가 많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서 씨	김 씨	최 씨	기 타
강쟁이마을	41호	17호	4호	3호	17호
지레마을	37호	-	11호	1호	25호

- 최고령자

강쟁이 마을의 최고령자는 조 인순 할머니로 올해 78세로 건강하신편이며, 지레 마을은 노 금순 할머니로 올해 92세의 고령이시지만, 건강하시다.

3) 자연 경관

강쟁이 마을 앞으로 얼마전부터 유곡리에서 예산방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지키고 있는 장군석이 있는데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공사로 인해 안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마을 위쪽인 대술 방면으로 조금 올라가면 전설이 담겨져 있는 오형제 고개가 나오는데 아산시와의 경계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이곳

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즘들어 식당들이 들어서고 있다.

지레마을은 강쟁이 마을과 마찬가지로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마을 사이로 예산방면으로 연결될 도로가 포장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마을 가운데로 개울이 있는데 물고기가 살 정도로 오염 안된 물이 흐르고 있다. 마을 앞에는 좌우로 장군석이 서있어 마을을 지키고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강쟁이 마을과 지레마을은 본래 온양군 남상면의 지역으로서 강씨와 장씨가 많이 살았으므로 강장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인아리, 지라리를 병합하여 강장리라 하여 아산군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5) 입 향

강쟁이 마을이 형성된지는 서기 1640년경 약 36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마을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성씨는 밀양 박씨라 하는데 현재 12대째 살고 있으며 10대조 선조께서 박파충이란 벼슬을 하셨는데 지금의 대장급 군관이었다고 한다. 밀양 박씨 다음으로 전주 이씨가 10대째 살고 있다.

지레마을은 마을이 형성된 연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단지 성씨가 처음 터를 잡고 살았다고 알고들 있었다.

6) 지 명

十 강쟁이 마을 지명

·강쟁이 : 강씨와 장씨가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오형제 고개 : 강장리에서 예산군 대술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 산에 고개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고개는 온양쪽에, 또 두 고개는 예산쪽에 있고, 가운데 고개가 가장 높는데 옛날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다. 옛날부터 오형제의 고개 살인사건에 얽힌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고분군 : 백제 시대의 고분으로 추정. 사기소 마을에 있음.

十 지레마을 지명

·지레 : 강장 서쪽 산속에 있는 마을. 지형이 지라와 같다하며, 이곳에 옥녀직금형의 명당이 있다고 함.

·잉아재(잉아) : 지레 북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벼들에 잉아를 건 것과 같이 되었다 함.

7) 전 설

十 장군석 (강쟁이 마을)

어느날 마을 사람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자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에 자기를 세워주면 마을의 노총각들을 모두 장가 보내주겠다고 한 후에 사라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개꿈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꿈에서 나타나 알려주었던 장소로 가서 땅을 파보았는데 장군석 두 개가 나란히 누워 있더라. 그래서 그 장군석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마을 입구에 세워주었는데 그 후로 정말 꿈속에서 약속한대로 노총각들이 모두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한다.

十 오형제 고개 전설 (강쟁이 마을)

예산군 대술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산에 고개 다섯이 있어 오형제 고개라 불리게 되었는데 두 고개는 온양쪽에 또 두 고개는 예산쪽에 있고 가운데 고개가 가장 높는데 이 고개에 옛날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어느 온양 장날밤. 이 고개에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온양쪽 첫 고개에서 죽고, 또 한사람은 예산쪽 첫 고개에서 모두 칼을 맞아 죽고, 두 사람은 한 가운데인 이 고개에서 상처없이 죽고 다만 술병과 돈 꾸러미만 한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온양 원은 피의자로 예산쪽 첫고개 밑 새술막에 살면서 혼자 술장사를 하는 문침지를 유일한 증거물의 소유자로 잡았으나 그 위인이 선량한데다 일체 부인하므로 일종의 의혹 사건이 되어 인근 읍은 물론, 국내 관장들을 괴롭게 하였는데 마치 문침지의 집에 붙여 살던 단양사는 김도령이란 사람이 연구한 끝에 세 도둑놈이 온양장에서 돈 가진 양민 한사람을 데리고 오다가 온양 첫고개에서 죽이고 그 돈을 빼앗은 후 세놈이 동행하여 이 고개에서 한사람을 시켜 새술막에 가서 술을 사 가지고 오게한 후, 두놈이 힘을 합하여 술을 사오는 놈을 예산 첫고개에서 죽이고, 그 술을 가지고 이 고

개에서 마셨는데 그 술인 즉 술사러 간 놈이 딴 욕심이 나서 술에다 독약을 탄것이라 하여 비로서 옥사가 풀리었으므로 이일을 오형제고개 살인사건이라 하여 전해오고 있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강쟁이 마을에 전해져 오는 전통놀이는 없지만, 제례행사로 장군석 제사가 있는데 이는 매년 음력정월 열나흘 저녁 7시경에 지내고 있는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장군석이 서있는 마을입구에서 지내고 있다.

지레 마을에서는 산신제와 성황제를 지내고 있는데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 지내며, 두 제사 모두 같은 날 지내고 있다. 성황제는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에다 지내는데, 매우 엄격하게 지내며, 아직도 마을의 평안을 산신제와 성황제의 정성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

10) 공장현황

강쟁이 마을이 위낙 산속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공장이 들어서기가 어려우며, 대신에 이런점을 이용하여 사슴목장을 겸해 사슴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파는 커다란 음식점이 생겨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실정이다.

지레마을에는 공장이 하나 있는데 사슴의 녹용을 이용한 영양 건강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力 초원식품 : 강장 13-5, 허가일 96.9.7. 면적 513, 종업원수 2, 사슴엑기스생산

11) 종교단체

마을이 작고 지리적으로 산골에 있어 아직도 무속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으며 산신제와 성황제를 아직도 지내고 있다. 특별한 종교단체는 없다.

12) 마을의 특성

강쟁이 마을은 산골이라 할 만큼 깊은 곳에 위치하고 교통편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모두 무속신앙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있다.

지레마을에는 마을앞 정자나무 밑에 시멘트로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애경사시는 서로 마을끼리 돕는 전형적인 시골마을이다.